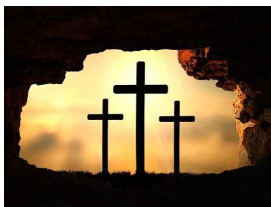




열번째 이야기

주님께 지는 삶

[신앙에세이⑤]



오늘은 부활절, QT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내 안에 깊숙하게 차오른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치유해주었던,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에 갇히셨었는데.... 사라지셨다! 어디로 가셨을까....

빈 무덤을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는 주님,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한다. “나의 선생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내 목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반응은 QT가 아니더라도 매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준다.

아마도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일곱 귀신 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일지도,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일지도, 그렇게 만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빈 무덤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때도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늦은 나이에 만난 하나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번 요란하게 하는 나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열심이 특성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에 열심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선을 제대로 긋고 있었다.

‘교회에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섬길 수만 있다면 섬기겠습니다. 단 간사는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단 선교사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단 신학교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간사, 선교사,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BEE 간사를 거쳐 지금은 BEE 선교사로 BEE(이동신학교) 세미나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에 나의 유한한 고집은 버티지 못하고 졌다. 주님께 지는 삶은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요즈음 다시 주님 앞에 지는 시간, 즉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싶어 했는지,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무지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또 오랜 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온

나를 봐야 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것이라는 확신한 가운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보고 행했던 무지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배려 깊은 책망이다. 아마도 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 같다.

날마다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하나를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감격한다. 여전히 오늘도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존귀한 성도의 직분을 행하도록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열정에 탄복한다.

내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삶에 진정한 “주”가 되시기까지 그 어떠한 환경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불편하지만 평안하다.

[글쓴이 비느하스 선교사]

BEE Korea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2012년 파송되어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든 BEE Korea 선교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2020년부터 현재 까지 본부 사역을 겸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사울의 회심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1542~45년 프레스코 625*661cm 바티칸궁 파올리나 예배당 천장 부분)

미켈란젤로가 70세 가까운 나이에 교황의 명을 따라 그린 그림으로, 바울의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회심 사건(행8)을 다룬 것이다. 그의 마지막 그림 중의 하나로, 이 그림 이후 그는 건축 디자인에 몰입하였다.

율법의 사도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가던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와 그의 눈을 멀게 하자 그는 땅에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하는 사울이 손 모양은 다른 삶에 대한 암시를 보여 주고 있고, 다른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고 있고, 어떤 이는 하늘이 빛을 방패로 막고 있다. 그림 속 위의 하늘에는 예수와 이 기적을 보는 성자들이 있고 아래의 지상에는 패배한 세상 군대와 도망가거나 숨는 사람들이 있다. 패배하여 예수님을 본 사울은 마침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하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5월 7일(토) 6:30, 서빙고 한동홀! 드디어 대면으로 BEE 토요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아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5).”

기도 TABLE 배치

아프리카2	아프리카1	Fellowship
미주1	미주2	서남아
중국/중앙아	본부/동북아	동남아



3.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된에 따라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 졸업식 및 컨퍼런스 참여하기 위해 조문상 선교사님께서 탄자니아[졸업식, 5월 7일~15일]와 과테말라[졸업식과 컨퍼런스, 5월 27일~6월 3일]로 떠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이후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선교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